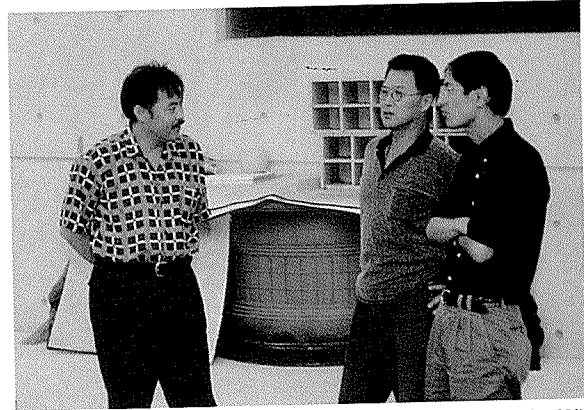


탈각의 몸짓

Breaking Away

대담자 / 이일훈(이일훈 건축연구소, 경기대 건축대학원 겸임교수)
설계자 / 김인철(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Lee Il-Hoon & Kim In-Cheurl
일 시 / 1997. 9. 5 오후 5:00
장 소 / 행응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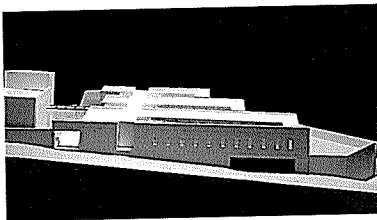
대담광경(좌로부터 이일훈, 김인철, 강혁)

이일훈 우선 적은 예산의 어린이집을 완공시킨 노력에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주변의 이야기부터 들어가자. 그간의 여러 작업에서 형태적 탐구욕이 강했다고 본다. 최근 들어 조형적 표현을 피하고자 하는 듯이 보이는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는가? 아니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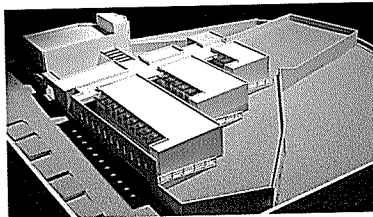
김인철 최근에 들어서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형태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떠난 것은 꽤 오래 전부터이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철이 들어서인지 모르지만 그래왔던 것들이 부질없게 생각된다. 우리의 작업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 계기는 다기주주택 같은 작은 것들을 만지게 되면서부터인 것으로 생각된다. 많지 않은 경험이지만 하지만 전통건축의 현장에서 느낀 것 역시 형태가 아니라 공간이었으므로 지금이라는 시점에 그것을 접목시켜 보려는 의도가 최근의 작업들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 형태는 공간을 위한 형식이라는 생각, 형식은 본질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생각, 수단을 갖고 아무리 고민해 보아야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생각, 공간을 굳이 안과 밖으로 나누어야 하는가라는 의문, 안과 밖의 구분을 없애야 할 때 어떤 형식이 가능할까라는 의문, 상대적이지도 절대적이지도 않은 공간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등이 요즈음의 생각들이다.

이일훈 평소 건축이 지니는 공공성(어린이집 만큼 공공성을 지니는 프로젝트는 없다)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럴 때 건축가의 자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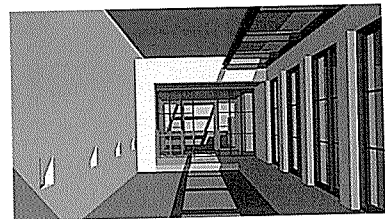
김인철 이상하게도 건축의 기능적인 공공성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주어진 대지와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일차적인 분석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과정 이후의 작업은 나만의 세계 속에서 진행된다. 좋은 건축, 제대로 된 건축이 무엇일까에만 집착할 뿐이다. 당연히 상식과 감각으로 다루어지겠지만 각론적인 공공성보다 원론적인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싶다. 대중적인 상식의 선보다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미 고정되어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관으로부터 일탈하고 싶다. 뒤집어 생각하는 버릇이 요즈음 심해졌다. 건축가의 할 일이란 상식에 상징을 더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간에서 내가 하려 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형식으로부터의 자유, 구획으로부터의 자유, 어른의 감시로부터의 자유, 알록달록 아기자기로 규정지어진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 자유롭다는 것은 결국 자연스러움으로 표현되는 것이기에 「아이들은 자연스럽다」라는 것으로 어린이의 집이 상징되어야 하지 않을까?



행응어린이집



행응어린이집



행응어린이집

이일훈 _____ 매번 발표되는 작업들에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 같다. 그 자세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번 어린이집에서 제일 즐겁게 만든(즐긴) 부분은 무엇인가?

김인철 _____ 사이사이에 만들어진 빈 공간들이다. 노출 콘크리트를 만들어 내느라 고생한 것도 재미있었지만 그것은 과정이었고, 결과로서 즐기려 한 것은 건축의 사이에 만들어지는 틈새의 감각이었다. 구체적이고 기능적인 교실들이 나열된 것보다 그 사이에 만들어진 헛것에 애착을 느낀다. 과장한다면 그것을 장치하기 위해 교실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상상하기에 어린이의 공간은 교실 안이 아니라 빈 마당이 될 것이다. 교실 안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곳으로만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공간들이 어떻게 이용될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그것은 교육의 전문영역이기에 나로서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규정짓지 않음으로써 가능성을 제공하고 그곳에서의 일들을 상상하는 것이 만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일 것이라면 무책임한 것일까?

이일훈 _____ 뒤집어 생각하기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한 방법일 뿐이다. 안과 밖을 병치시킨다고 구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건축공간은 내외부공간이 서로 장악·연결·관입하는 방법 등의 기법으로 더욱 공간다워지는 것이 아닐까? 설명처럼 빈 공간이 주된 의도였다면 외부와 외부의 연결 방식 또는 외부공간 자체의 구성이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나?

김인철 _____ 내가 생각하는 안과 밖의 개념은 이분법적이거나 짝(Pair)의 의미가 아니다. + 와 - 가 아닌 0의 관념적인 상황으로 생각한다. 연결방식이나 구성방법에서 적극적인 의도는 포기하였다. 봉정사의 영선암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우연히 조합된 느슨함 때문이다. 계산된 의도에 의해서 건축과 공간을 긴장시키기 보다 풀어놓은 편안함에 관심을 갖고 있다. 어깨의 힘을 빼고 처야 상대를 눕힐 수 있듯이 목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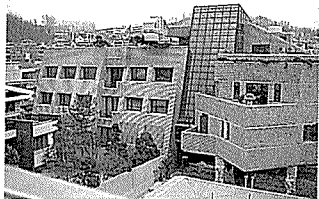
앞서는 방법론은 경직되어 서투른 결과를 만들고 만다. 형식과 구성에서 긴장을 의도하지 않은 것은 형태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게을러서 편안한 것과 부지런해서 편해지는 것은 다르다. 이번의 작업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치워내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이런저런 군더더기들을 걷어내고 낸 나머지가 지금의 모습이다. 허전하게도, 무미 건조하게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므로 공간의 가능성은 더욱 확장될 것이라 기대한다. 마당을 향한 문들을 모두 열거나 떼어 놓을 수 있게 한 것은 굳이 고정하는 것보다 느슨한 틀의 역할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일훈 _____ 기존의 보육시설은 흡사 새집이면서 방치된 듯이 보인다. 마치 귀찮아서 버려 놓은 듯이 무신경하게 처리되었다. 장치 새로 만들어도 연결의 방법이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주인입의 방향과 직교하여 연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본체는 1층으로 끝나고 있어 증축에 대비한 흔적이 없다. 말을 바꾸면 사이공간 만드는데 주력하여 땅을 넓게 자리 잡고 토지의 비효율을 가져온 듯이 보이는데... 꼭 1층이어야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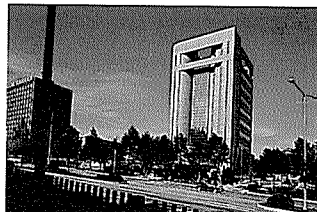
김인철 _____ 기존 건물을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철저히 내버려두었다. 고려되었다면 그것이 다시 지어질 때를 위한 작은 융통성을 둔 것 정도이다. 그것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실마리도 나에게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대로 두어 둔다고 해서 방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야 할 이유도 없었기에 그것을 그곳에 그대로 있게 하였다. 어설픈 배려보다 솔직한 인정을 택한 것이다. 그것에 다시 손을 댈 기회가 주어진다면 만드는 방법론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결과를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단층으로 넓게 퍼놓은 것은 궤변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규모를 압축하거나 2층으로 만들어서 대지의 여유공간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있었



삼현제(85)



연호조형관(86)



한성기업(87)



원불교경주교당(88)

으나 빈 곳과 채운 곳이 스며들 듯이 어울려 있어야 한다는 생각하기에 망설이지 않았다. 2층이어야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하더라도 집의 앓음새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이일훈 이번 프로젝트를 형식주의를 빌어 말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형식으로 설명하기엔 공간 구성의 내용이 단조롭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복도를 Spine으로 삼고 좌우에 Wing을 붙인 구성은 단순 명쾌해서 좋다. 하지만 Spine의 끝과 시작이 결국 풍경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끝났다. 특히 기존의 놀이터와의 연결이 내부의 주동선 축과 관계없음이 아쉬운데,

김인철 나 역시 어떤 형식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지 않았다. 더욱 단조로울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 복도의 천정을 열어 놓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아쉽다. 끝이 끝으로 끝나고 만 것은 나의 매너리즘 때문이다. 검붉은 벽돌의 다가구주택들이 가득한 동네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왕십리를 내려다보는 조망은 놓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되었다. 집과 놀이터를 건너서 시가지까지 확장될 수 있는 장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성토지반, 예산, 그대로 두어 달리는 요구)과 쉽게 타협하였기 때문이다. 동네 주민에게도 개방되는 놀이와 모임의 장소이자 시가지 내려다보는 열린공간으로 만들어 집과 일체가 되도록 동선의 연결이 아닌 공간의 상징적인 처리를 시도하였는데 난해하였는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설득과 타협 중에서 타협을 택한 안이함은 결국 나의 탓이다.

이일훈 어린이 집은 그냥 탁아소가 아니다.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아침저녁으로 드나든다. 나는 매일 드나드는 부모들의 입장이 설계자의 좋은 디자인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 연관시키면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고 이웃을 사귀고 수다떨고 그런 사랑방 같은 기능이 아쉽다. 증축할 때쯤이면 그런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아울러 언덕

위에 있다는 장소의 특성도 살리면서...

김인철 커뮤니케이션이란 서로 통한다는 뜻이다. 통하기 위해서는 말이 오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 만나야 하고 또 말 나눌 장소가 있어야 한다. 장소라는 단어 때문에 건축이 곧잘 만남의 장, 대화의 장 등 졸업작품의 제목 같이 거론된다. 나는 그런 널뛰기식 논리전개가 탐탁치 않다. 아무 곳에서나 기대어 서서도 좋고 담그늘 아래 쭈그러 앉아서도 좋지 않은가? 완고하게 버티어 서서 갓 이삭은 새덕을 쭈뼛 거리게 하거나 현관 문틈으로 아이만 들여 미는 살벌함은 피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만나지는 곳, 마주치는 곳, 그것이 만남의 장이고, 대화의 장일 것이다. 만났으니 대화를 나눌 장소가 필요하다거나 대화의 장에 들어왔으니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습지 않은가 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동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뒤범벅으로 섞이는 것이다. 여자와 어린이만 있는 공간이어서 불상사를 염려하는 부모들에게 사방을 열어 둬으로써 오히려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사랑방과 같은 구체적인 역할을 할 공간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다. 어린이 집의 대지와 건축 전체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일훈 과장없이 말해 몽땅 콘크리트 덩어리 집이다. 특히 외부는 100% 콘크리트로 끝내고 있다. 재료가 지닌 물성과 아이들의 심성이 충돌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건축가의 의지를 앞세운 독단의 측면이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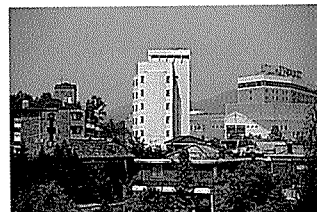
김인철 현대문명의 형용사가 되어 버린 콘크리트의 상투적인 이미지를 객관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은 거칠고 투박하고 건조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다른 대안을 갖지 못하였다. 출근이 늦기 때문에 아침의 어린이 방송을 피할 수 없어 난감해 한 적이 많다. 어른이 아이를 흉내내어 하는 말투가 내게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거슬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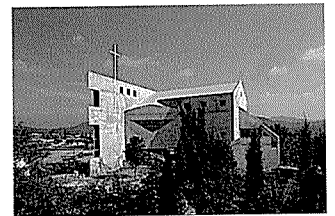
SOLSTICE(89)



OXID(90)



CAMPORTS(91)



EQUINOX(92)

다.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의 공간이라고 해서 둥근 창, 세모창 만들고 꼬깔지붕 만들어 알록달록 칠하는 것은 아이를 아이로 만 있게 하려는 어른의 기만이라 생각한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텅빈 벽을 아이들 앞에 놓기 위해 콘크리트는 적절한 것이라 생각한다. 온갖 것이 배려되어 있는 친절한 벽보다 단순한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순수함이 아이들을 더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나아가면 대상이 아이이거나 어른이거나에 관계 없이 건축의 물성과 인간의 심성이 만나는 접점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로 초점이 모아진다. 물성에 좌우되는 알팍한 오늘의 심성을 생각하면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물성에 초연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느낀다. 철없는 아이들을 그릇된 물성으로 오염시키는 것보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소신일까?

이일훈___ 유사한 경험이 많아지면 우리는 그것을 노하우(Knowhow)하고 부른다. 그것은 결국 기술이다. 건축가의 노하우는 단순한 기술 자체가 아니다. 이와 유사한 기회가 다시 온다면 어떻게 풀 것인가?

김인철___ 두 번째의 어린이집이 끝났음에도 노하우는 어떤 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오히려 만들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지 모른다. 이리의 첫 번째와 성동의 두 번째는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 혹시 형식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개념이 달랐기에 확실히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같은 성격의 일이 다시 주어진다면 모르긴 해도 아마 또 다른 공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자기 모방 또는 연속되는 복제가 가장 두렵다고 한 어느 화가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또 이년 후가 다를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이렇게 하면 되더라기 보다 그렇게 하니까 안되겠더라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를 경멸하거나 학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묘한 마조히즘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꾸준히 변할 것이 분명하다. 주변으로부터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평을 그래서 듣고 있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전처럼 생각없이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조금은 위안이 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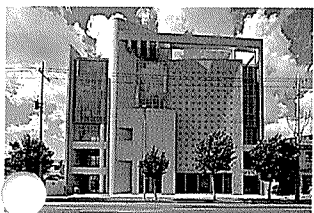
다. 또한다면 어떤 것이 만들어질지 제일 궁금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일훈___ 「형태 만들기에 관심 없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형태는 만들어진다. 또 비웠다고 하나 「사이를 만들려고 했다」는 의지 속에서 결국 또 채워진다. 건축가로서 자기 모순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김인철___ 물론 형태는 당연히 만들어진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건축의 시작을 형태로부터 끌어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결과로서의 형태 역시 부수적인 의지일 뿐이다. 이미지를 스케치할 때 투시적인 그림보다 배치도 같은 평면도를 더 많이 그리고 있다. 공간구성에 의해서 형태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되므로 「Form Follow Function」을 「Form Follow Space」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사이는 분명히 의도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서 비어 있는 곳이 되지만 그것은 전체로부터 격리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속의 부분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무엇인가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박제된 공간이 아니라 무궁한 가능성을 갖는 장소로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규정되거나 고정된 장치와 기능을 갖기보다 확장과 응집의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두어진 것이므로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일훈___ 최근에 자주 말하는 「무성의 공간-없음의 미학」은 결국 스스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일인데 그러한 허무를 드러내면서 만드는 건축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김인철___ '없음'을 요즘의 화두로 삼고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근본적인 부정에서 비롯되었다. 무작정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분법으로 전개되기 쉬운 우리 작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합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빈곤한 머리와 여러손을 거쳐 만들어지는 속성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절반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뒤집어 보면 더 잘



COLLAGE('93)



이리어린이의 집('94)



JXTAD('95)



NOMAD('96)

도 있다는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다. '없음'이란 명제가 '허무'로 읽혀진다는 것은 의외다. 것처럼 낭만주의자가 되기에 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리적이다. 전쟁하듯이 집을 만들어야 할 지경에 감상적인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해서 만

들어지는 것에 거는 기대는 순수함과 자연스러움이다.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나 절제될 수 있는, 철저하게 의도되었으나 결코 드러나지 않는, 그러므로써 그것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성립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보고 싶다.

대답 후기 _____ 우리가 건축을...

집구경은 신나는 일이다. 오래된 집은 사람사는 시간의 때가 배여 있어 녹녹하고, 새집은 지은이의 생각이 막 펼쳐져 신선하다. 건축가 김인철의 어린이집을 구경하자는 제안에 쾌히 응한 이유는 그와의 개인적 친분도 작용했지만 사실은 새집구경의 설레임이 주된 이유였다. 방문전에 받아본 간략한 자료때문에 나는 적당히 흥분했는데 그 이유는 그집이 자리한 곳이 내가 잘 아는 언덕 꼭대기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곳에서는 여느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기가막힌 왕십리 지나 성동벌을 가르는 시원하게 트인 전망이 아차산을 부른다. 보통의 어린이집이 동네구석의 짜투리 땅에 혹은 처박힌듯이 마련된 현실에 비하면 위치의 프리미엄이 너무나 벽찬 것이었다. 나의 기대는 온통 언덕위의 전망좋은 집이 갖는 설레임 뿐이었다. 어린이집이 이렇게 저렇게 풀려야 된다는 건축적 해결은 솔직히 나의 관심밖이다. 그건 그 일의 총체적 리더인 건축가 김인철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답사 후에 도면과 현장의 느낌이 다르다거나 생각보다 달라보인다는 감상을 토하는 평론가나 건축가를 마음속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도면화된 정보가 정확하다면 어느 경우든 변함없이, 그려진 집은 세워진 집과 같아야 하고 또 같을 수밖에 없다. 하나 꼭 현장을 봐야 하는 이유는 건축내용의 즉흥성이 혹시 있나 없나 하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주변의 환경과 어떻게 교류하는가의 문제다. 건축가들의 제공에 의하는 정보는 때때로 주변을 생략하기 일쑤이고 부분적인 과장과 확대된 의미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집이 지어진 지 얼마되지 않은 새집임을 알리는 프랭카드가 골목벽에 붙어 있다.

<원아모집>

꿈과 사랑의 교육마당
최고의 시설로 신축한 행운어린이집

나는 다시 되짚어 생각했다. 건축을 통해 이루어지는 꿈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인가? 최고의 시설은 무엇을 말하

는가? 그걸 싸잡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건축적 제안이 교육프로그램과 적합하게 조우하거나 나아가 변환되는 여러 행태를 수용할 가능성을 지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은 첨단 장비가 동원되지 않고도 공간의 첨단을 이룰 수 있으리라. 그게 최고요, 새로움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그 전위를 보이는 첨단은 보편의 영역으로 확장됨이 마땅할 것이고, 결국 건축이 기댈 곳은 공간이 가장 깊숙하다.

다시 나의 설레임으로 돌아가자. 집구경 전에 기대했던 동네와 풍경의 호기심은 결국 깨져버리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김인철의 육성고백을 통해 솔직한 반성때문이다. 나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김인철의 솔직함은 대화의 피로를 덜어준다. 나는 그의 그런 솔직함이 좋다. 그래서 편안하게 후기를 통해서 다시 밀줄을 그어본다. 그의 말중

- 건축가의 할 일이란 상식에 상징을 더하는 것
- 계산된 의도에 의해서 건축과 공간을 긴장시키기 보다 풀어놓은 편안함에 관심을 갖는다.
- 아이들을 그릇된 물성으로 오염시키는 것보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 것.
- 만들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지 모른다. 등 그외에도 더 많다.

그의 말은 말꺼리 충돌한다. 왜 그럴까? 그의 말의 욕망은 손의 욕구보다 강하고 사고의 욕심보다도 앞서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만들어진 그집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가 따르기 전에 "설득과 타협 중에서 타협을 택한 안이함은 결국 나의 탓"이라고 고백하며 그것은 "~나의 매너리즘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의 반성속에서 나는 오히려 그가 매너리즘의 굴레를 벗으려하는 강한 몸부림을 본다. 그 탈각의 몸짓이 무슨 동기때문인지 나는 짐작할 뿐 알 수가 없다. 그의 마음속을 읽는 재주를 갖지 못한 나는 다시 깨진 설레임을 주워 담으며 그의 만들지 않으려한 사이를 이루는 건축의 모습을 떠올린다.

우리가 건축을...

<이일훈>